

정서의 공발생 경험 구조

강혜자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정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대표적 용어들을 선정하여 정서의 구조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300명의 대학생에게 대인 관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들을 자유 반응하게 하여 정서 용어들을 모으고, 우리말 국어사전에서 뽑은 용어들 및 정서 구조에 관련된 국내의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대표적 정서 용어들을 토대로, 1515개의 정서 관련 용어를 추출하였다. 이 중에서 정서 개념으로 비교적 명료하다고 판단되는 818개의 용어를 가려내어, 대학생들에게 정서성을 평정하도록 하고, 이 정서성 평균치를 참고하고, 필자들이 정서 용어로서 의미 유사성, 범주의 포괄성 및 대표성을 기준으로 하여 80개의 대표적 정서 용어를 선정하였다. 이 정서 용어들을 전체적으로 두 개씩 쌍으로 짝지워서, 이 각 쌍의 정서를 함께 경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300명의 대학생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로부터 80개 정서 용어들 상호간의 비연합치 행렬표를 얻은 다음, 이를 군집분석과 ALSCAL 프로그램으로 다차원 분석을 하였다. 군집분석의 결과, 크게는 세 정서 군집과 불쾌 정서 군집으로 나뉘어지고, 불쾌 정서는 세 정서보다 더 복잡하게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다차원 분석을 한 결과, 스트레스 11% 수준에서 세 차원의 좌표치를 얻었다. 세 차원의 의미는 각각 쾌-불쾌, 활성화, 및 긴장-이완으로 해석되었다.

인간의 정서 경험이 어떻게 구조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Wundt에서 시작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정서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져 왔다. Wundt(1897)는 인간의 여러 가지 정서 경험이 쾌-불쾌(Pleasantness-Unpleasantness), 흥분-억제(Excitation-Inhibition), 그리고 긴장-이완(Strain-Relaxation)의 3차원으로 구조화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Averill, 1975).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정서 경험을 기술하는 데 요구되는 차원들의 수와 성질에 관해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으며, 사람의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한 일련의 사진들을 재료로 하거나, 피험자들에게 영화 등을 보여 주면서 실제 정서의 체험을 보고하게 하거나, 혹은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련의 용어들을 표집하

여, 요인 분석법, 의미 미분법, 다차원 분석법 등을 사용하여 정서의 구조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 중, Schlosberg(1952)는 72장의 다양한 얼굴 표정 사진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여 정서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쾌-불쾌(Pleasantness-Unpleasantness)와 주의-거부(Attention-Rejection)의 두 차원을 추출하고, 이어, 활성화(Sleep-Tension)가 중요한 차원임을 제안하면서, 얼굴 표정과 생리적 반응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Schlosberg, 1954). 또한, Engen, Levy, 및 Schlosberg(1958)는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일련의 얼굴 표정 사진들을 재료로 하여, 차원 분석을 하였는데, 이는 Schlosberg(1954)의 3차원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연

구로서, 1차원이 쾌-불쾌, 2차원이 활성화, 및 3차원이 주의-거부로 나타나, 활성화(activation)가 두번째 차원으로 부각되었다. 이 차원은 "sleep" 및 "tension"의 얼굴 표정 사진을 이전 연구(1952)에서보다 더 많이 포함시켜서 얻은 결과였다.

정서의 실제 체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험자들에게 영화를 보여 주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감정을 보고하게 하거나(안신호, 이승혜, 및 권오식, 1994; 조사 5; Nowlis, 1965), 시감상에서 경험되는 정서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기분을 평가하게 한 연구도 있다(이만영과 이홍철, 1990). 안신호 등(1994, 조사 5)은, 영화 관람시의 피험자들의 감정 보고 자료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에서 크게 부적 감정, 쾌, 권태 혹은 가라앉은 감정, 그리고 연민 및 슬픔의 4개 단극 요인을 추출하고, 활성화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만영과 이홍철(1990)은 피험자들의 자유 반응을 근거로 정서 용어들을 모으고, 이 용어들에 대한 적절성 평가, 피험자의 기분 상태 평가, 및 연구자가 제시한 시의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로부터 평정치를 얻고 이를 군집 분석과 요인 분석을 하였는데, 요인 분석에서는 요인 수를 각각 2개, 5개, 6개, 8개, 및 9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분 평가의 경우, 요인 수를 5개로 고정시켰을 때, 전반적 쾌, 내부지향 불쾌, 외부지향 불쾌, 수동적 정서, 및 흥분/침잠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시 평가의 경우에도 요인 수를 5개로 고정시켰을 때, 요인의 순위 차이는 있으나, 이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한편, 일부의 연구자들은 정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피험자들에게 정서의 의미 유사성이나 혹은 정서성을 판단케 함으로써 정서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안신호, 이승혜 및 권오식, 1993; 안신호 등 1994; Averill, 1975; Bush, 1972, 1973; Russell, 1978, 1979, 1980, 1983; Russell, Lewicka, & Niit, 1989; Russell & Mehrabian, 1977).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는 우리말 사전에서 정서 관련 단어를 추출하여, 213개의 대표적 정서 단어를 가려내고, 이것을 근거로 단어의 범위를 더 줄여 가면서, 96개 단어와, 22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정서 단어의 유사성 평정과 분류 과제를 실시하고, 이를 군집 분석과 다차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차원 분석에서, 96개 단어 분석의 결과와 22개 단어 분석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는데, 1차원은 쾌-불쾌가 분명하였지만, 2차원 이상은 분명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안신호 등(1994)은 또다시 94개의 대표적인 정서 단어, 및 22개의 대표적 정서 단어들을 사용하여 군집 분석과 다차원 분석을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94개 대표 단어의 분석(조사 3)에서 네 차원이 추출되었으며, 1차원은 쾌-불쾌, 2차원은 해석이 다소 애매한 활성화, 3차원은 권태-수치, 및 4차원은 공포-질투였다.

또한, Averill(1975)은 정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로부터 717개의 정서 관련 용어들을 취하고, 피험자들에게 이 정서 용어들의 정서성과 친숙성을 평정케 한 다음, 이 평정치들을 참고로 하여, 558개의 정서 용어 목록을 만들고, 이것을 토대로 요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각각 평가(Evaluation), 활성화(Activation), 개인적 통제 부족(Uncontrol), 및 정서 경험의 깊이(Depth)의 네 요인이 보고되었다.

Bush(1972)는 기존의 정서 및 성격 관련 연구들에서 2186개의 용어를 모으고, 여기에서 감정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264개의 대표적인 용어를 선정하였다. 이 264개 감정 용어들의 유사성을 피험자들에게 판단하게 하여 평정치를 얻고 이를 다차원 분석한 결과, 쾌-불쾌, 활성화 수준, 및 공격성 수준의 세 차원이 추출되었으며, 피험자들의 인종에 따라서 감정 지각의 개인차도 발견되었다(Bush, 1973).

정서 단어 재료를 이용하여 감정의 구조를 파악하려 한 Russell의 연구에서는 쾌-불쾌 차원과 활성화(arousal-sleepiness) 차원이 추출

되었다(Russell, 1979). 이어서, Russell 등(1989)은 사람들이 정서적 느낌을 어떻게 개념화하며, 정서적 느낌에서 범문화적 보편성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여러 언어권에서 28개의 정서 단어로 기술된 감정의 유사성을 판단케 하여, 쾌-불쾌와 활성화의 두 차원이 범문화적으로 보편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 연구들을 볼 때, 정서 연구에 사용된 용어 목록이나 분석 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체로 활성화 차원이 보고된 연구들은, Schlosberg의 초기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활성화 차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가정함으로써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정서 용어 목록에 포함시킨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Averill(1975)은 그러한 용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요인을 추출하였다. 반면에, 신체적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제외시킨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 활성화 차원이 추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다차원 분석에 사용한 22개의 정서 단어 목록을 볼 때, 다양한 정서 경험을 포괄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각 정서 용어들이 각 정서 범주의 대표적 정서를 나타내는지 의심해볼 수도 있다. 군집 분석 결과에 의존하여 22개 용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성이 결여될 수도 있으며, 쾌-불쾌 이외의 차원이 나오지 않은 결과도 이 문제점에 기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자유 반응 및 사전을 통한 정서 용어 추출 작업을 거치고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정서 용어들을 포함시켜서, 최종적으로 80개의 정서 용어 목록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용어들을 바탕으로, 단순한 정서의 의미구조가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감정 체험을 반영하기 위해 감정 체험의 공발생 구조를 알아 내고 그 결과를 다른 정서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및 절차

대표적 정서 용어의 선정

정서를 일컫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 용어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300명에게 동성 및 이성의 대인 관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여러 친밀도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적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대인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 용어들을 첨가한 이유는, 사회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들이 중요하다는 가정에서였다. 이 자유 반응에 근거하여 정서 용어 786개를 모았다. 이 작업은 1991년 10월에 수행되었다. 둘째, 이희승(1982)의 국어 대사전에서 정서를 일컫는 것으로 판단되는 용어들을 추출하였다. 셋째, 정서 구조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 대표적 용어들로 보고된 정서 용어들을 모았다(안신호, 권오식 및 이승혜, 1990 ; 이만영과 이흥철, 1990 ; Averill, 1975).

위의 절차를 통해서 1517개의 정서 용어를 표집하였다. 필자들과 3인의 석사들이 이 용어들을 각각 검토하면서, 3인 이상이 정서개념으로서 비교적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818개의 용어를 선택하였다. 1992년 4월에 이 818개의 용어들을 409개씩 두 세트의 질문지로 만들어, 성균관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200명에게, Averill(1975)의 방법에 따라, 각 용어의 정서성(emotionality)을 "전혀 정서를 나타내지 않는다"(1점)로부터 "분명히 정서를 나타낸다"(7점)에 이르는 7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정서성 평균치가 4.0 이상인 용어들을, 용어들의 의미 유사성과 차이성에 따라 소범주들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범주들에서 정서성 평균치가 비교적 더 높고, 각 소범주를 대표한다고 필자들이 합의한 용어들을 가려내어, 최종적으로 각각 80개 용어로 구성된 두 세트의 정서 용어 목록을 마련하였다. 이렇

한 이유는, 정서성 평균치에만 의존하여 용어를 선정할 경우, 동일 범주내에 의미가 유사한 용어들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각 범주별 대표 용어들이 고르게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세트의 정서 목록 중, 용어들의 정서성 평균치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한 세트의 정서 목록을 사용하였다.

군집 분석 및 다차원 분석 자료의 수집

이 80개의 용어들을 토대로 군집 분석과 다차원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그 절차는 대체로 한덕용(1993)의 성격 특성의 지각 차원 연구에서 사용한 절차와 유사하였다. 즉, 80개 정서 용어들의 제시 순서를 전후로 서로 바꾸어 각각 두 개씩 쌍으로 짝지워 질문지에 제시하고, 두 용어 가운데 앞에 제시된 용어가 일컫는 정서를 경험할 때, 뒤에 제시된 용어가 일컫는 정서를 함께 경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7점 척도에 판단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16페이지로 된 소책자였다. 총 6320개의 정서 용어 쌍을, 용어의 제시 순서를 전후로 서로 바꾸어서 배치한 20개 종류의 이 소책자 각각에 316개의 정서 용어 쌍을 각각 수록하였다. 피험자는 성균관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심리학 개론 수강생 300명이었다. 20개 종류의 소책자에서 용어를 쌍으로 제시할 때 일정한 순서로만 제시함으로써 생기는 순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용어들의 제시 순서를 전후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20개 유형의 소책자는 10개 종류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20개 소책자당 피험자는 각각 15명씩이었지만, 10개 종류로 통합했으므로, 80개 정서 용어 상호 간의 쌍별 비연합 측정치는 각각 최소한 30명의 피험자들로부터 얻은 평정치 차이값들의 중앙치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80개 정서 용어들 상호 간의 비연합치 행렬표를 만들고, 이 자료를 사용하여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

다. 군집분석(average linkage method 사용)에서 각각의 정서 용어들 간의 거리는 Euclidian Distance 계산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연구 방법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차원 분석을 하였다.

다차원 분석의 결과로 얻은 차원은, 분석의 결과들로부터 두 차원씩으로 이루어지는 평면에 80개 정서 용어들의 좌표 점수들을 차원별로 위치시키고, 또한 해석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19개 의미미분 척도들에 대한 80개 정서 용어 각각의 의미 평정치를 얻어 의미 축에서의 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verill(1975)이 사용한 16개의 의미미분 척도를 참고로 하여 19개의 의미미분 척도를 만들어 각 정서의 의미를 7점 척도에 평정하게 하였다. 19개 의미미분 척도는 나쁘다-좋다, 추하다-아름답다, 언짢다-기분좋다, 쓸쓸하다-감미롭다, 조용하다-시끄럽다, 약하다-강하다, 작다-크다, 무력하다-강력하다, 느리다-빠르다, 활기없다-활기차다, 비활동적-활동적, 얕다-깊다, 이완-긴장, 통제 가능-통제 불가능, 논리적-비논리적, 의도적-비의도적, 적극적-소극적, 따뜻하다-차다 및 부드럽다-딱딱하다였다. 이 의미미분 척도의 평정에는 3-4학년 대학생 200명이 참가하였다. 이 19개 의미미분 척도들을 준거 변인으로 하고, 각 차원에서의 80개 용어들의 위치 점수를 예언요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회귀계수에 따라 각 차원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결 과

군집 분석 결과

먼저, 군집 분석의 결과를 Dendrogram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상위의 위계는 꽤 정서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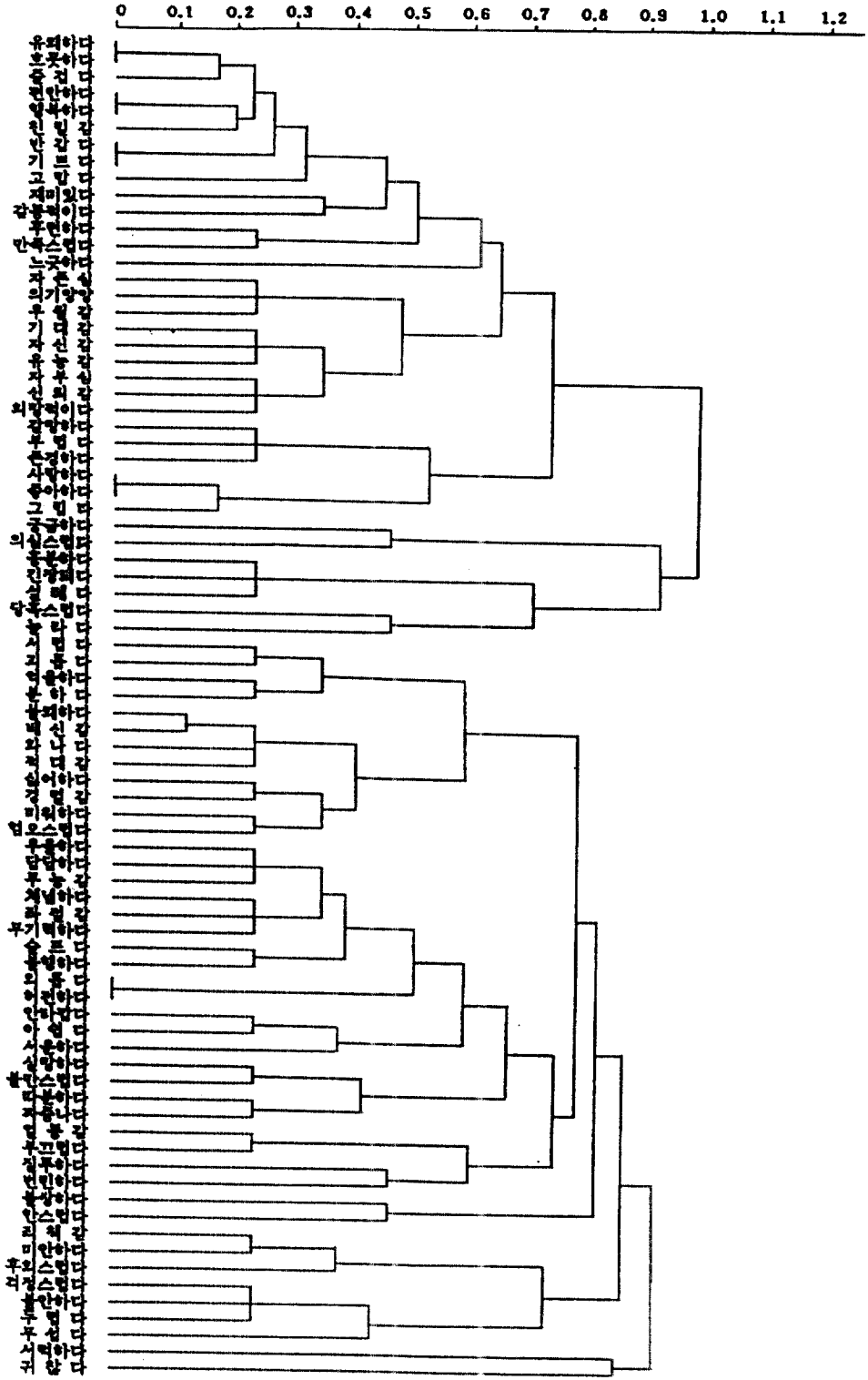


그림 1. 군집 분석 결과의 Dendrogram

집과 불쾌 정서 군집의 두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쾌 정서 군집은 다시, 만족감/자기 고양 정서와 정적인 대인 지향 정서로 묶여진 군집과 흥분/긴장 정서의 군집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만족감/자기 고양 정서 군집은 즐겁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및 느긋하다 등의 만족감 정서 군집과 의기양양, 우월감, 유능감, 자신감, 자부심 등의 자기 고양 관련 정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적인 대인 지향 정서 군집은 존경하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등의 정서들로 묶여져 있다.

쾌 정서의 하위 군집인 흥분/긴장 군집은 궁급하다, 의심스럽다, 흥분하다, 긴장되다, 설레다, 당혹스럽다, 놀라다 등의 정서들로 묶여져 있다. 불쾌의 성질이 분명한 흥분 정서 군집과 긴장 정서 군집이 불쾌 정서의 하위 군집들로서 별도로 묶여져 있지만, 쾌 정서의 하위 군집으로 묶여져 있는 흥분/긴장 정서 용어들은 의미로 볼 때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나 부정적 의미로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컨대, 흥분하다, 놀라다, 및 긴장되다 등은 기쁘거나 반가운 경우에서처럼 쾌 정서로 경험될 수도 있고, 분노나 공포의 경우에서처럼 불쾌 정서로 경험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이 용어들을 대체로 쾌 정서로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쾌 정서의 범주에 묶이기는 하였지만, 이 용어들 이외의 다른 쾌 정서들이 낮은 위계에서 묶인 반면에, 이 정서 용어들은 가장 마지막에 묶임으로써, 설명이나 해석이 쾌 정서의 다른 범주들만큼 명료하지는 않다. 즉, 이 군집의 용어들은 분명히 쾌 정서에 속한다기보다는, 쾌 군집이나 불쾌 군집과는 별개의 군집으로 볼 수도 있으며, 특정한 맥락에 따라 쾌 정서로 경험될 수도 있고 불쾌 정서로 경험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불쾌 정서의 하위 군집들은 안신호 등(1993)이나 이만영과 이흥철(1990)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쾌 정서보다 더 복잡하게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불쾌 정서 군집은 분하다, 배신감, 적대감, 경멸감, 미워하다 등의 표출적

인 부적 흥분 정서 군집, 우울하다, 체념하다, 슬프다, 외롭다, 허전하다, 아쉽다, 서운하다 등의 침잠 관련 정서 군집, 부끄럽다, 번민하다 등의 정서로 묶여진 군집, 죄책감, 걱정스럽다, 불안하다, 무섭다 등의 긴장 정서 군집, 그리고 서먹하다, 귀찮다로 묶여진 군집들이 하위 군집을 이루고 있다.

다차원 분석 결과

정서 용어들 간의 공발생 판단 자료를 ALSICAL에 의해서 stress가 11% 가까이 되는 차원까지 다차원 분석한 결과, 세 차원이 추출되었다. 3차원까지의 stress 수준은 각각 .23(1차원, $R^2 = .860$), .16(2차원, $R^2 = .889$), 및 .11(3차원, $R^2 = .917$)이었다.

다차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정서 용어별로 3차원 좌표치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또한 표 1에 제시된 바의 좌표치들을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내어 각각 1-2차원, 1-3차원, 및 2-3차원의 좌표치별로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가 각각 그림 2, 3, 및 4이다.

표 1의 좌표값과 그림 2, 3, 및 4에서의 정서 용어 배치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좌표치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제 1차원의 정적 극에는 유쾌하다(2.38), 흐뭇하다(2.24), 기쁘다(2.19), 즐겁다(2.15), 행복하다(2.12), 희망적이다(2.08), 만족스럽다(2.07), 신뢰감(2.02), 및 편안하다(1.95) 등이 주로 배치되어 있고, 부적 극에는 불쾌하다(-1.75), 좌절감(-1.63), 무능감(-1.61), 억울하다(-1.60), 분하다(-1.58), 짜증나다(-1.57), 무기력하다(-1.51), 불행하다(-1.50), 혐오스럽다(-1.48), 서럽다(-1.43), 및 화나다(-1.42) 등이 배치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쾌-불쾌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2차원의 한 쪽에는 경멸감(-1.44), 혐오스럽다(-1.42), 적대감(-1.33), 의심스럽다(-1.33), 우월감(-1.19), 무섭다(-1.13), 흥분하다(-1.09),

표 1. 다차원 분석 결과

순서	정서용어	차 원			순서	정서용어	차 원		
		1	2	3			1	2	3
1	유쾌하다	2.3824	.0768	.3831	41	희망적이다	2.0826	-.0523	-.2064
2	서럽다	-1.4289	.6658	.3130	42	아쉽다	-.1758	1.0559	-.2041
3	우울하다	-1.3220	.5707	.3736	43	미워하다	-1.0304	-.9560	.3178
4	괴롭다	-1.3860	.0156	-.2385	44	사랑하다	.8991	.3619	-.4041
5	불쌍하다	-.8789	.4980	1.4202	45	무섭다	-1.0012	-1.1327	-1.1318
6	편안하다	1.9456	.2107	1.1364	46	질투하다	-.3626	-.7307	-.8868
7	억울하다	-1.6017	-.7195	.4023	47	의심스럽다	-.6317	-1.3298	-.8809
8	죄책감	-1.3323	-.0447	-1.0326	48	우월감	1.4783	-1.1925	.7427
9	걱정스럽다	-1.0066	.3365	-.8768	49	당혹스럽다	-.6993	-1.0399	-.9953
10	불쾌하다	-1.7518	-.8141	.2526	50	고맙다	1.9005	.2833	-.4621
11	행복하다	2.1179	.0139	-.1938	51	분하다	-1.5766	-.9982	-.0933
12	화나다	-1.4225	-.5795	-.1759	52	귀찮다	-.9738	-.9045	1.2098
13	자존심	.2953	-.8944	.2259	53	반갑다	1.8254	.2556	-.3601
14	체념하다	-.9967	.6449	1.0461	54	무농감	-1.6052	.3594	.3520
15	답답하다	-1.2436	.3696	-.3155	55	후회스럽다	-1.2119	.6124	.0347
16	미안하다	-.2651	.5940	-.9480	56	흐뭇하다	2.2438	.2752	.4551
17	의기양양하다	1.9275	-.9593	.5451	57	불만스럽다	-1.3264	.0096	.3591
18	궁급하다	.3163	.7586	-1.4925	58	부럽다	.6584	1.1182	-.5260
19	싫어하다	-1.4843	-1.0565	.4873	59	존경하다	1.6407	.2344	-.8175
20	기대감	1.4929	.2529	-.6341	60	실례하다	1.5553	.1867	-.9926
21	안타깝다	-.6951	1.1712	-.3848	61	불안하다	-.9911	-.1245	-1.0152
22	후련하다	1.4850	.2186	1.4816	62	배신감	-1.4061	-.7436	.1751
23	자신감	1.9028	-.6749	.2904	63	재미있다	2.1523	.1361	-.4041
24	느긋하다	1.4829	.3777	1.5509	64	친밀감	1.8390	.7658	-.2230
25	실망스럽다	-1.3567	.1084	.6467	65	짜증나다	-1.5701	-.3074	.5546
26	열등감	-1.3934	.1584	-.3849	66	번민하다	-1.0314	.4530	-.4294
27	따분하다	-.9400	.8446	1.7335	67	기쁘다	2.1856	.0382	-.0216
28	부끄럽다	-.5751	.4762	-1.2472	68	감동적이다	1.7420	.5403	.4397
29	갈망하다	.7543	.8744	-.3323	69	적대감	-1.2954	-1.3326	.2406
30	유농감	1.8886	-.8580	.3036	70	슬프다	-1.1223	.7473	.3893
31	서먹하다	-.6021	.4495	-1.1464	71	혐오스럽다	-1.4822	-1.4156	.4971
32	흥분하다	.6648	-1.0872	-.4607	72	놀라다	.4740	-1.0330	-.8814
33	외롭다	-.9191	1.1142	.5702	73	만족스럽다	2.0730	-.1891	.4191
34	서운하다	-.7136	.9880	.2877	74	불행하다	-1.5018	.3419	.3389
35	자부심	1.8113	-.8228	.7114	75	두렵다	-.9596	-.2137	-.9885
36	경멸감	-1.1808	-1.4377	.8596	76	좋아하다	1.3993	.2424	-.3164
37	한스럽다	-1.2365	.8538	.8374	77	무기력하다	-1.5146	.5400	.3405
38	긴장되다	.2029	-.6191	-1.2320	78	그립다	.4393	1.3389	-.0413
39	신뢰감	2.0151	-.1134	.4154	79	허전하다	-.5938	1.4802	.3414
40	좌절감	-1.6279	.2855	-.1518	80	즐겁다	2.1498	.0720	.0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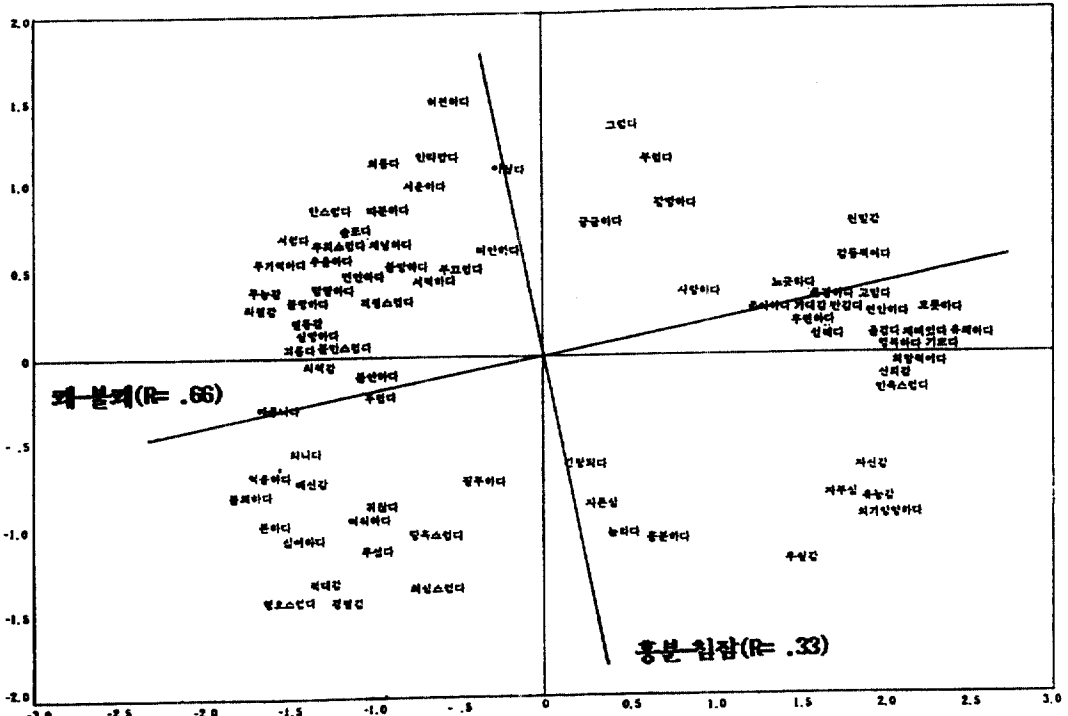


그림 2. 제 1(수평) 및 제 2(수직) 차원에서의 정서 용어들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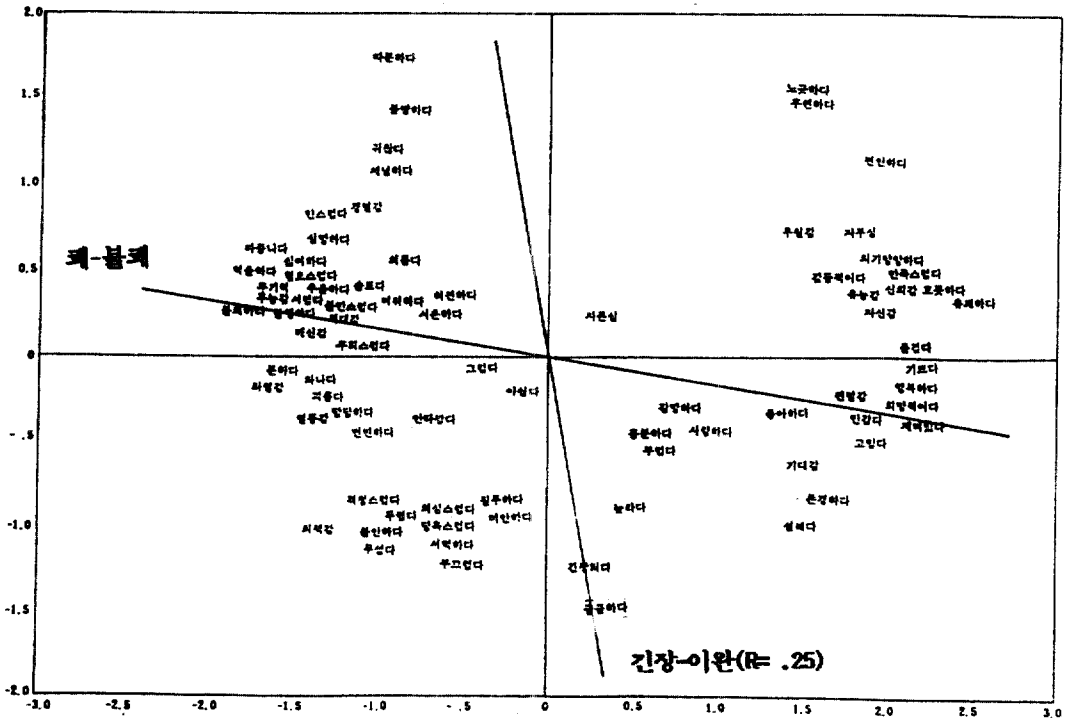


그림 3. 제 1(수평) 및 제 3(수직) 차원에서의 정서 용어들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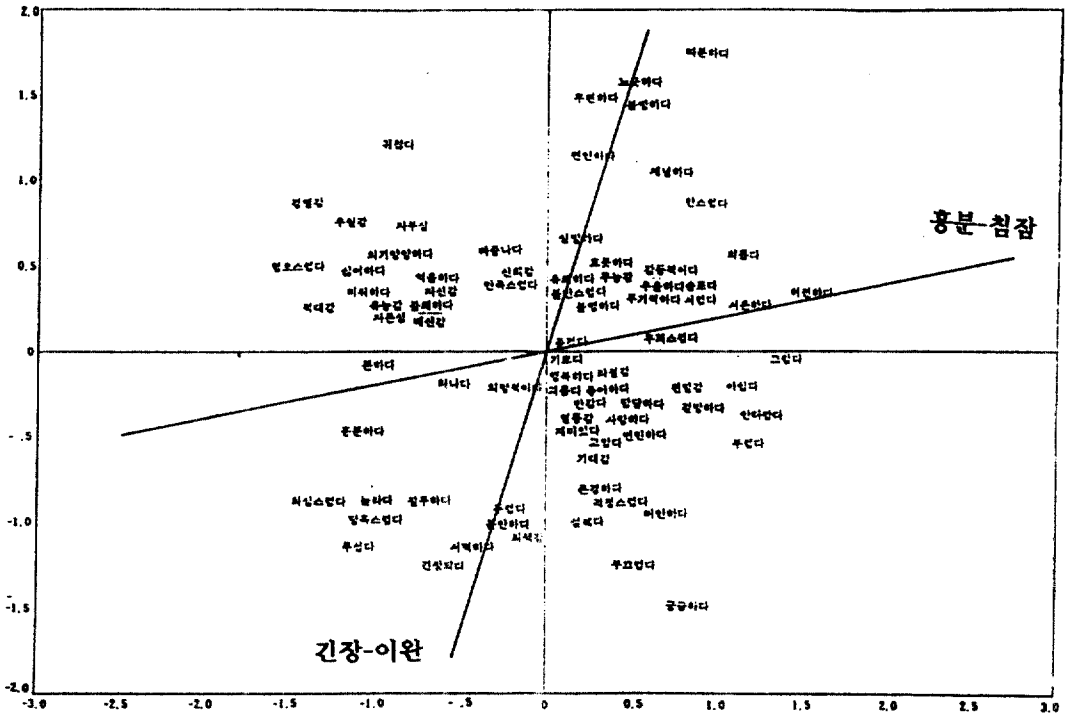


그림 4. 제 2(수평) 및 제 3(수직) 차원에서의 정서 용어들의 위치

싫어하다(-1.06), 당혹스럽다(-1.04), 놀라다(-1.03), 및 분하다(-1.00), 등의 정서 용어들이 높이고, 반대 쪽에는 허전하다(1.48), 그림다(1.34), 안타깝다(1.17), 부럽다(1.12), 외롭다(1.11), 아쉽다(1.06), 및 서운하다(.99) 등의 정서 용어들이 양극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차원은 넓은 의미로 볼 때, 활성화(흥분-침잠)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더 좁은 의미로는 정서 대상에 대한 배척의 성질이 있는 표출적인 부정 흥분 정서들과, 정서 대상에 대한 심적 지향의 성질이 있는 침잠 정서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제 3차원을 보면, 한 쪽 극단에는 공급하다(-1.49), 부끄럽다(-1.25), 긴장되다(-1.23), 서먹하다(-1.15), 무섭다(-1.13), 죄책감(-1.03), 불안하다(-1.02), 당혹스럽다(-1.00), 설레다(-1.00),

및 두렵다(-.99)가 배치되어 있고, 반대쪽 극단에는 따분하다(1.73), 느긋하다(1.55), 후련하다(1.48), 불쌍하다(1.42), 편안하다(1.14), 귀찮다(1.21), 및 체념하다(1.05) 등의 용어들이 배열되어 있다. 따라서 이 용어들로 이루어질 때 제 3차원은 대체로 긴장-이완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제 1차원은 쾌-불쾌의 차원으로, 제 2차원은 활성화(흥분-침잠), 그리고 제 3차원은 긴장-이완의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논 의

앞에서 해석한 다차원 분석 결과에 균집 분

석 결과를 적용시켜 해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그림 2에서 다차원 분석 결과로 나타난 제 1차원(쾌-불쾌)은 쾌 극단에 군집 분석 결과의 쾌 군집이, 불쾌 극단에 불쾌 군집의 정서들이 위치함으로써 두 분석의 결과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제 2차원과 제 3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4를 보면, 흥분-침잠 차원의 흥분 극단은 표출적인 부적 흥분 군집의 용어들과 흥분/긴장 군집의 일부 용어들이, 침잠 극단은 침잠 군집의 정서 용어들이 위치해 있다. 한편, 긴장-이완 차원의 긴장 극단은 불쾌 군집의 하위 군집인 긴장 군집의 용어들과, 흥분/긴장 군집의 일부 용어들이, 그리고 이완 극단은 쾌 정서 군집의 용어들 중 정적 이완을 나타내는 느긋하다, 후련하다, 편안하다와 불쾌 정서의 하위 군집 용어들 중 따분하다, 불쌍하다, 체념하다 등의 정서 용어들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다차원 분석 결과의 제 2차원과 제 3차원 해석도 대체로 군집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들과 간략히 비교해 보기로 한다.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는 1차원으로 쾌-불쾌의 차원이 일관되게 나왔지만, Averill(1975), Schlosberg(1954), Russell(1980), 및 Russell 등(1989)의 연구들에서 발견되었던 활성화 차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으며, 다른 차원들은 해석하기 곤란하였다. 안신호 등은 그 이유를, Schlosberg(1954), Russell(1980) 및 Russell 등(1989)의 연구에서 “sleepy”, “drowsy”, “tired”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데 반해, 그들은 이 용어들이 신체 상태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서 이 단어들을 제외시킨 데 기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분석에서 제외한 Averill(1975)의 연구에서 활성화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에서 점수가 높은 쪽의 극에는 흥분하다, 들뜨다, 의기양양하다, 격노하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점수가 낮은 쪽에는 외롭다, 낙담하다, 지루하다, 음울하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신호 등(1994)

의 연구에서도 신체 상태의 의미가 있는 용어를 배제했지만, 결과에서는 이전 연구에서와 달리 활성화로 볼 수도 있는 차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안신호 등(1993)이나, Averill(1975)의 주장에 동의하여, 신체 상태를 강하게 나타내는 “졸리다” 등의 단어는 80개 정서 용어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활성화(흥분-침잠) 차원이 추출되었다. 이 차원은 Engen 등(1958)이 주장한 sleep-tension이나, 혹은 Russell(1979)이 주장한 arousal-sleepiness에 가깝기 보다는 Averill(1975)의 활성화 요인과 다소 가깝고, 또한 안신호 등(1994)의 2차원(격한 부적 감정 대 가라앉은 부적 감정)과도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졸리다”, “피곤하다” 등의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배제하더라도, 활성화가 정서의 주요 차원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긴장-이완이 3차원으로 추출된 데 비하여, 안신호 등(1994)에서는 권태-수치가 3차원으로, 질투-공포가 4차원으로 나왔으며, Averill(1975)에서는 개인적 통제 부족이 세번째 요인으로, 정서 경험의 깊이가 네번째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Bush(1973)에서는 공격성 수준이 3차원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 용어의 차이, 측정 방법의 차이, 혹은 자료 분석의 차이 등에 부분적으로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서 구조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 다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서 구조의 대표적 두 차원인 쾌-불쾌와 활성화가 본 연구에서도 추출되었으며, 불일치를 보이는 다른 차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안신호·권오식·이승혜(1990). 정서의 구조 : 정서 단어의 분석. 199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3). 정서의 구조 : 한국

- 어 정서 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 107-123.
-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4). 한국어 정서 단어의 분석 : 정서 단어의 유사성 구조와 정서 체험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1), 150-175.
- 이만영·이홍철(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 정서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실험 및 인지*, 2, 118-138.
- 이희승(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한덕용(1993). 성격 특성의 지각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98-211.
- Averill, J.R.(1975). A semantic atlas of emotional concept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5, 330. (Ms. No. 421)
- Bush, L.E.II(1972). Empirical selection of adjectives denoting feeling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7.
- Bush, L.E.II(1973). Individual differences in multidimensional scaling of adjectives denoting feel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50-57.
- Engen, T., Levy, N., & Schlosberg, H.(1958). The dimensional analysis of new series of facial expres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5, 454-458.
- Nowlis, V.(1965). Research with the Mood Adjective Check List. In S. S. Tomkins and C. E. Izard(Eds.), *Affect, cognition, and personality*(PP.352-389). New York : Springer.
- Russell, J.A.(1978). Evidence of convergent validity on the dimension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52-1168.
- Russell, J.A.(1979). Affective space is bipola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45-356.
- Russell, J.A.(1980).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8.
- Russell, J.A.(1983). Pancultural aspects of the human conceptual organization of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281-1288.
- Russell, J.A., Lewicka, M., & Niit, T.(1989). A cross-cultural study of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848-856.
- Russell, J.A., & Mehrabian, A.(1977). Evidence for a three-factor theory of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73-279.
- Schlosberg, H.(1952). The description of facial expression in terms of two dimen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4, 229-237.
- Schlosberg, H.(1954). Three dimensions of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61, 81-88.

The Structure of Emotion from the Experiences of Emotional Cooccurrence

Hye-Ja kang Duck-Woong Hahn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structure of emotion from the experiences of emotional cooccurrence. 1517 emotion-related terms were first gathered from the subject's free-responses, Korean dictionary, and previous studies on the emotion structure. Then, 818 terms judged as being more appropriate by current investigators were selected. Finally, 80 emotional terms were selected based on subjects' ratings in terms of similarity, categorical inclusiveness and representativeness. 300 subjects were asked to rate the degree to which pairwise emotional terms are experienced cooccurently in order to obtain input data for cluster analysis and MDS(ALSCAL).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motional structure consists of pleasantness and unpleasantness clusters and that the unpleasantness cluster was more differentiated than the pleasantness cluster. MDS on 80 emotional terms revealed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on the 11% stress level : (1) Pleasantness-Unpleasantness, (2) Activation, and (3) Tension-Relaxation.